

GIST, AI 반도체 전주기 교육·연구 ‘트라이앵글’ 완성

내소날인스트루먼트와 업무협약
장비·엔지니어 파견·교육 지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연구소 운영도
“국내 최초 통합형 협력 모델 구축”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내소날인스트루먼트와 AI 반도체 테스트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이 AI 반도체의 설계 검증 평가를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교육·연구 기반 산학 협력 모델인 ‘AI 반도체 트라이앵글’을 완성했다.

13일 GIST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테스트·계측 및 반도체 검증 솔루션 분야 선도 기업 내소날인스트루먼트(NI)와 AI 반도체 테스트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NI는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전력 효율·안정성을 측정하는 테스트·계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도화된 측정·검증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컴퓨팅 플랫폼 IP 선도 기업 Arm Limited(Arm)와 추진 중인 ‘GIST Arm 스쿨’(설계)에 이어 테스트·검증 분야까지 확장하는 ‘GIST-NI 스쿨’(검증·평가)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팹리스 기반 설계, 파운드리 생산, 반도체 조립·제작, 검증·평가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통합형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실전형 반도체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을 동시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NI는 GIST에 반도체 테스트 장비·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파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현물을 제공한다.

GIST와 NI는 ▲AI 반도체 테스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웨이퍼·패키징·최종 테스트 및 AI 칩셋 실증 협력 ▲랩뷰(그래픽 기반 계측·제어 소프트웨어)·테스트 스탠드(자동화

테스트 관리 소프트웨어)·시스템 링크(테스트 데이터 관리·운영 플랫폼) 기반 자동화 테스트 기술 교육 ▲개방형 테스트 플랫폼 기반 산학연 공동 연구 ▲지역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 실무협의체인 ‘글로벌 AI 반도체 기술 연구소’를 구성해 AI 반도체 전문 교육과 성과 산업 연계형 실습 인프라, 검증·평가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철 GIST 총장은 “NI와의 협력으로 검증·테스트 분야까지 확장함으로써 반도체 전주기를 아우르는 교육·연구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글로벌 수준의 인재와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투 파브레 NI CEO는 “GIST와의 협력으로 차세대 반도체 테스트·검증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협력 기반을 함께 구축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실력광주·인성전남 ‘투 브랜드’로 시너지 극대화”

광원포럼 ‘교육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
인센티브 도입·인사 이동 원칙 준수必



광원포럼은 최근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현황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원포럼 제공>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을 앞두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의 장이 열렸다.

13일 광원포럼에 따르면 최근 광주 Y마트 본점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현황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된 교육행정 통합의 실질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과 강수훈 광주시의원,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김대중 예비후보, 이정선 예비후보, 사학법인 이사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 24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양일 전남도교육청 통합추진단장과 김치곤 광주시교육청 통합추진단장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의 교육 자치 특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지방 소멸이라는 공통의 위기 앞에 서 있다”며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결합이 아니라 양 지역의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교육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력 광주의 명확한 경쟁력과 ‘생태·환경 중심의 인성 교육’이라는 전남의 강점을 살리는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 원칙을 제시했다.

정진철 조선대 교수는 “양 교육청 간 느슨한 결합인 ‘투 브랜드 시스템(Two Brand system)’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통합을 추진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무 과제로 ▲조직·정원 ▲인사 제도 ▲자치법규 ▲교육과정 ▲교육재정 ▲정보시스템 ▲사무관리 ▲예산·결산 등 8대 분야를 제시

했다. 토론회에서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직원 인사 문제와 학군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합으로 인해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급의 직책수당화 등 인센티브 도입과 권역별 인사 이동 원칙 준수 등 현장의 불안을 잠재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철 광원포럼 회장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지방 소멸 대응’과 ‘교육 자치 강화’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포럼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도교육청, 특수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주력’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훈련’ 운영
바리스타·사무행정 등 현장 중심

나눠 진행되며, 실무 중심의 직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향상을 돕는데 중점을 뒀다.

전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 진로 직업교육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직무훈련은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남발달장애인지역체험관에서 운영된다.

직무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해 기본과정 특별과정으로

기본과정은 특수학급(25교) 및 특수학교(4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사무행정, 간병보조 등 12개 직무의 현장 중심 직업훈련이 운영된다.

특별과정은 특수학급(29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식품포장, 편의점 스테프 등 6개 직무에서 실무 중심의 직업체험이 이뤄진다. /박선욱 기자

조선대 ‘K-Move스쿨’...글로벌 인재 31명 양성 본격화

조선대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 ‘K-Move스쿨’ 연수과정을 개시하고, 해외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제공한다.

‘K-Move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으로 올해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 ‘국제 경영인 양성과정’과 ‘국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해 총

31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참가자들은 취업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해외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조선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욱 기자

표 이강 · 개강

가족표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